

사랑이 넘치는 앞사람  
6마당을 나온 암탉을 읽고

앞사람에게

앞사람, 안녕? 매미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여름방학에 너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온빈이  
라고 해. 나는 학교에서 만화를 통해서도 너를  
만났지만 책을 읽으며 너를 만날 때가 더욱  
반가워. 그래서 너를 만나고 싶은 때면 책 장

을 넘기며 너의 이름을 불러본단다  
때 내 앞사람이 네가 닭장에 갇혀 있을  
때 내 마음이 무척 아팠어. 마당에서 병아

리를 돌보는 암탉을 부러워할 때 내가 책 속  
세상으로 들어가서 너를 구출해 주고 싶었어.

누군가 나 방에 가득한 행복을 구출한다면  
답답해서 울음을 터뜨렸을 거야. 그런데 앞사람  
이 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알을 부화시키겠  
다는 꿈을 꾸더라. 나는 그 장면에서 감 작 놀란단  
다. 너의 긍정적인 태도가 멋있으면서

나도 항상 밝은 마음이 되면서  
생활해야겠 다고 다짐

했어. 앞사람, 너는  
결국 초록이를 사랑





# 한글손편지

로 키워 내지. 대단해. 입쌩아! 조록이가  
 너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줄 때 기분이 어때?  
 내가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하면, 우  
 리 얼마나 행복하다고 말씀하시. 입쌩이  
 너도 많이 행복했니? 나는 솔직히 말하면  
 입쌩이 네가 친엄마가 아닌데 조록 머리  
 를 종제비로 부터 지켜내어 훌륭하게  
 자랄수 있도록 키워낸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우리 엄마는 나를 키우시면서  
 가끔 "아이고 힘들어"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  
 어. 그런데 너는 친자식이 아닌 입쌩한  
 것과 같은 조록 머리를 키우면서도 한번도 슬픈  
 소리를 안하더라. 너의 가슴에는 항상 사랑으로  
 가득찬 것 같아. 나도 너처럼 웃음이 만고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되도록 노력할게.  
 입쌩아! 너의 곁에는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힘을  
 내면 좋겠어. 나도 용기가 필요할 때  
 너를 떠올리며 힘을 낼게

그럼 안녕!

2022년 8월 3일 수요일

-은빈이가-

